행자교육 질 향상 "의견일치"

조계종 교육원 '기초교육 개선' 공청회

교과목 조정 "육체적 수련 탈피해야"

행자교육기간 "3주교육 짧다 … 4주로"

상설행자교육장 "승가교육기관 활용"

15일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의 주최로 열린 '기초교육 교과목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행자교육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교과목 조정, 행자교육기간 연장, 상설행자교육장 마련 등 교과과정과 행자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교과목 조정 무비스님(은해사 승가대학원장)은 "행자교육원에서의 지나친 육체적 훈련과정은 종단 전체의 교육과정에서 볼 때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있다"면서 "일보삼배, 운력, 오후불식 등 육체적 수련에 치중돼 있는 교육부분을 개선토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보광스님(동국대 교수)은 "행자교육은 포교와 수행 등 평생승려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원로스님이나 사회인사들의 경험담 등 특강마련도 그 방법중 하나"라고 말했다.

"행자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승가의 일원으로서 느낌을 심어주는 교육이 돼야한다"고 전제한 본각스님(중앙승가대학 교수)은 "현재의 본사와 교육원의 이중구조를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교과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은 재적사찰에서 사전교육 차원에서 지도하고, 행자교육원에서는 조계종지와 선종핵심선지,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실천교육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은 "율장중심적인 교육보다는 경율론 삼장을 고르게 교육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신심을 유도하는 합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장스님(수덕사 주지)과 종광스님(종회 교육분과위원장)은 "행자교육원 입방에 앞서 6개월간의 본사교육이 행자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하는 본사의 행자교육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본사교육의 체계확립을 위해 법산스님(동국대 교수)은 "6개월간의 사찰 행자교육기간동안 실행할 수 있는 월정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만들어 활용하자"고 제안했으며 중복교육을 피할 수 있고, 교육효과도 증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행자교육기간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현행 3주의 행자교육원 교육기간이 짧다는데 동감했는데 밀원스님(불학연구소장)은 "종헌종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행자교육기간을 1주 늘릴수도 줄일수 도 있다"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과목은 쉽게하면서도 신앙중심의 정신훈련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비스님은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가을에 열리는 제15기 행자교육원에서는 기간을 4주로 늘리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행자교육장 설립 일연스님은 "상설행자교육장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면서 "앞으로 여행자교육을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보광스님은 "행자교육원을 교육부로부터 정식 승려교육기관으로 인가받아 기초교육제도를 제도권 교육으로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밀원스님은 "상설교육장 설립보다는 기존의 중앙승가대 동국대 지방승가대 등을 이용해 행자교육기간을 4년으로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기타 우진스님(통도사 승가대학 교수)은 "초실류 성직자 양성위해 다수보다는 소수인원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면서 "행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직자 습의사 양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공청회에는 실질적으로 행자교육을 맡고 있는 율사스님들이 모두 불참해 행자교육 교과과정 개선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남겼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교육원장 암도스님이 "앞으로 종단차원에서 행자를 모집, 전국 본사로 다시 분출하는 종단주도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지정토론자로 나선 스님들은 시대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행자교육에 대한 열띤토론을 벌였다.

공청회 발제문 요지

행자는 승가의 2세다. 그동안 우리는 2세 교육인 행자교육에 너무나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변화하는 현 시대를 살고있는 행자들을 위해 시대성을 반영한 다각적인 방법을 수용한 행자교육이 필요하다.

현행 행자교육원의 교육체계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교육 가운데 정진시간이 33.5%로 가장 많으며 강의 시간은 17.5%에 불과해 육체적 훈련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제1기부터 14기까지 몇몇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재적사찰과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이 차별화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교육기관과 기본교육기관간의 교육목표와 방법 그리고 내용이 혼재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종단적 차원의 행자교육 체계확립과 교과목 개선은 필요불가결하다.

균형적인 교육과 수행, 공동체 생활을 통해 수도와 교화의 기초를 이루는 교과과정이 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교과목 개선안을 제안한다.

수도와 교화의 기초를 이루는 교과목으로 불교기초교리·일상의식·보현행원품 등을, 불교사·조계종사·고승전 등은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이루는 교과목으로 구성돼야 한다. 또 출가수행자로서의 자긍심과 승가규범을 익힐 수 있는 교과목으로는 부처님의 생애·사미(니)율의 위의문·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등이 마련돼야 한다. 교육시간은 강의시간을 확충하고, 교과목도 기존의 5과목에서 9~10과목으로 증편해야 한다. 또한 사찰구조의 이해, 좌선의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특히 행자교육원 실시 이후 계속 거론돼 온 상설행자교육장의 설립을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종단과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궈내야 한다.

무비(은해사 승가대학원장)

목어

2000년을 앞두고

지금은 20세기말. 미국인 마크 R 미튼은 최근 펴낸 '2000년을 앞두고 해야할 1000가지 일'에서 지금이야말로 '성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차분히 주변을 돌아보자는 미튼의 1000가지 할일 중에서 10가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①평소 가고 싶었던 곳을 여행하라. ②은퇴한 선배나 은사를 찾아뵈어라. ③행복했던 날을 회상하라. ④하고 싶었던 일과 한일의 대차대조표를 만들라. ⑤가족사를 정리하라. ⑥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친지들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라. ⑦고향집을 찾으라. ⑧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하는 신문광고를 내라. ⑨가족과 저녁식사를 자주하라. ⑩학창시절 본 책을 다시 펼쳐보라.

이 10가지만 읽어도 바쁘게 뛰면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숨을 돌려 호흡을 가다듬게 된다. 어떤이들은 그럴새가 어디 있느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실천 할 수 없더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희망사항이기 때문이다.

이 제안에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 자성, 나눔, 진실, 인정, 회상, 사색, 꿈 등이 담겨있다. 이런 단어들은 기계적인 일중독에서 벗어나 지극히 인간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한다.

여행을 해야지, 선배나 은사를 찾아 뵈어야지, 생각만으로도 가슴뿌듯한 일이다. 행복했던 날의 회상은 수채화처럼 아름답다. 가끔 인생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자기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만약 흑자이면 재물이 아니더라도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적자이면 잘 살수 있도록 새 삶을 설계하면 된다. 가족사를 정리하다보면 인연의 소중함을 확인할 수 있다. 친지들과 자주 만나고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함은 따뜻한 사회를 가꾸는 기본요소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고향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것이다. 학창시절에 본 책을 다시 펼치면 풋풋했던 꿈을 다시 만날 수 있다.

작은 일 같지만 소중한 일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에 애정을 갖는 것"이란 말이 있다. 자기를 애정으로 성찰하고 나와 인연지어진 '관계'를 애정으로 가꿀때 지금은 물론 내일 그리고 '새로운 천년'에 꿈과 진실이 가득할 것이다.

잇단 훼불-공약 불이행 '달래기'

국민회의 사무총장 조계종에 왜 왔나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의외로 많은 선물보따리를 가지고 14일 조계종을 방문했다. 정사무총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교계는 여러 갈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2월 새정부 출범 이후 대불교계 공약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교계의 여론을 의식한 방문이라는 것이 우선적인 견해다. 공약사항 가운데 최대 관심사였던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문제가 법제처의 반려와 기획예산위의 국가예산지원 중단 검토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백지화 일로에 빠진데 대해 불교계는 상당히 반발했기 때문이다. 정사무총장이 월주스님을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뒤 가장 먼저 이 두가지 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같은 기류를 읽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종교편향과 훼불 사태로 잔뜩 화가 난 '불심'을 달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시각도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정부출범 직후 청와대 수석과 각부처의 장관 임명에서 극소수의 불자가 기용된 것과 관련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과 최근의 편향 훼불 사건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 불교계의 시각을 정부와 여권이 간과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관련 정사무총장은 월주스님에게 "인사상 편향적 인상을 심어준 것은 대선직후 당내의 불교특위가 해체되어 불교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하고 "당내에 종교위원회의 설치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사무총장의 월주스님 예방이 21일 재보선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선거를 의식한 방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정부출범 이후 그간 방치하다시피 해 온 대선 공약사항들의 이행 추진 현황을 강조하며 불교계를 방문한 것은 지방 재보선 선거를 앞둔 '불심잡기' 일환이라는 것이다. 정사무총장이 "지난 대선때는 엄중한 중립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로 월주스님과의 인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재보선 선거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도출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방문한 정균환 국민회의 사무총장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등 교계 현안에 대한 정부 여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월주스님 문화재보존 등 11개항 '요구'
재보선 선거 불심잡기 방문 시각도

월주스님은 정사무총장에게 △농지관련법 개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 보존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사찰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 △팔만대장경 한글화 및 전산화 지원 △불교방송 지방국 추가 개국 허가 △불교중앙 박물관 및 사찰 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남북불교 교류 지원 △황룡사 미륵사등 사사지 복원 △청소년 수련장 건립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계사 경내지 정비 지원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 했다. 대부분 김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이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정사무총장은 긍정적 검토와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월주스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향후 1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은 사회 각계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 난국 극복에 호흡을 같이 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김수환추기경과 강원룡목사 등 각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임을 강조했다.

새정부 출범후 여당의 대표자로서는 처음 조계종을 방문한 정사무총장의 행보가 공약불이행에 대한 반감과 잇다른 종교편향과 훼불사건으로 인해 '화가난 불심'에 어떤 처방전으로 작용될지 주목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나라가 어려울 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금강산 건봉사 성지대회

우리나라 최북단 강원도 고성 금강산 건봉사에서 아미타 염불 성지대회를 개최합니다.

- 일 시 : 1998년 8월 5일~7일(2박 3일)
- 장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 건봉사
- 참 가 비 : 3만원
- 신청대상 : 개인, 단체, 사찰, 가족단위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 교 통 편 : 개인별 건봉사 도착
- 문 의 : 02)732-1215~7

(서울·경기 지역 출발 안내)

- 출발장소 : 서울 조계사 앞
- 시 간 : 1998년 8월 5일 오전 9시
- 교 통 편 : 관광버스
  (단, 동참자는 참가비·교통비 포함 55,000원을 미리 접수 바람)
- 은행구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 : 023-21-0667-309
  조흥은행 : 390-04-249351
  농 협 : 053-02-128104
  우 체 국 : 013029-0024268
  외환은행 : 173-18-10454-9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모집
-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시는 모든 분
-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 회원회비 : 연 1만원
-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6)

회원이 되시면
-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 가정에서 매일 염불기도 하실 수 있는 회원수첩을 드립니다.
- 법보신문에 매주 고유번호와 성명이 게재됩니다.

IMF극복과 통일을 위한
전국 염불만일 정토법회

극락세계를 열어가는 정토법회를 염불 큰스님과 대법사님을 모시고 마련하오니 아미타부처님과의 만남의 장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터리)
- 7월 26일(일요일) 정토법회 : 법사 한탑스님(담양 정토사 주지)

※지방 거주자를 위하여 정토법회 통신생을 모집함. 희망자는 전화신청 바람.

일 시	법 사	일 시	법 사
8월 2일	혜경 스님(무설정사 주지)	9월 6일	장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9일	권기종 교수(동국대 교수)	13일	채인환 스님(동국대 교수)
16일	정태혁 교수(정토학술회장)	20일	한보광 스님(동국대 교수)
23일	태원 스님(승가대 교수)	27일	장휘옥 교수(동국대 교수)
30일	무진장 스님(전 포교원장)		

※10월 이후는 큰스님과 대덕교수님을 모시고 법회를 엽니다.

전국 念佛萬日會
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 02)732-1215~7 FAX :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